추방과 탈출

(요11:45~57)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추방과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추방과 탈출'

조선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의문점의 대표적인 예가 양녕대군과 충녕대군과의 관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은 세 번째 임금 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 번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되십니다.

이 양녕이 세자에서 물러난 사건을 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녕대군의 행동이 세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과 여색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이 도저히 세자로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셋째 아우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는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는 항간에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양녕의 사람됨이 호방하고 넓어서 자기보다 총명하고 어진 셋째 아우 충녕이 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행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녕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자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올 수 있느냐?
충녕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 양녕입니다, 양녕을 따르는 무리들이 언제 양녕을 옹립해서 왕이 되려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종대왕과 양녕대군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물러나게끔 된 그의 방만한 행위는 셋째 아우에게 물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양녕이 세자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추방이었다, 그의 기질은 일부러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고 워낙 방탕한 기질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세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함이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추방되었다.

첫 번째 의견을 따르면 양녕은 세자의 자리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세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행함으로써 세자의 자리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두 번째 의견을 따르면 세자는 자기의 핏속에 섞여있는 호방한 자질을 자제하지 못하므로 결국 세자로서의 행동범위를 넘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아,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추방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탈출을 자행한 것인가?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53절에 '이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결정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영향력 아래 예수를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유대사회의 최고의 결의기관인 산헤드린에 공식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사적으로 예수님을 질투의 마음과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마음으로 미워했지만, 그리고 그때그때 격분해서 돌로 치려는 대중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는 산헤드린에서 아예 민족적인 공식 결정사항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때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가야바가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게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악의에 찬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게 좋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일치한다는 것을 요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악의에 차서 한 얘기인데, 그 악의에 찬 예수님에 대한 사형결정사항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문자적으로 표현했을 때 일치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본의 아니게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밝혀낸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형벌로써의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추방이냐 탈출이냐를 결정해야 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산헤드린의 결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유대사회로부터 나아가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방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형벌로서의 추방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방당하는 사회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사형도 결국은 추방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추방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이 추방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사형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간절

하게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의 추방인 사형이 형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방시키겠다고 자기들은 형벌로서 결정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의 추방이 형벌이 될 수 있는 분이냐 하는 얘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었다는 것이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인간이 되어 살고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천국에 계셨고 천국에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천국과 연결이 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면 그렇게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되실 것을 알고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이 세상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추방으로서의 형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천국을 알고계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실감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천국과 연결이 되어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신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지도자들과 유대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추방시킨다고 나름대로 형벌을 주려고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추방으로서의 이 죽음이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과 비교할 때 세상은 너무도 별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천국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고 구속된 것이니까.
단지 예수님에게 형벌을 주려고 죽이겠다고 결정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

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왜 그것이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천국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게 매임이요 구속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자기들이 천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게 형벌인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고계신 예수님께는 탈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탈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추방시킨다고 생각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생각을 이용하셔서 실제로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출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셔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시는 이 경로가, 모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탈출경로가 된다는 이것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왜 메시아 됨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건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경로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유일한 분이었고, 천국에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탈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다~ 모아놔 봐야 사도바울의 말대로 배설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배설물을 좋다고 갖겠다고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구속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천국을 알고계시는 입장에서는 죽임당하심이 추방이 아니라 탈출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탈출이, 이 죽임당하심이 모든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동안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은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아쉽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부귀영

화가 죽음에 의해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병마용갱을 만들었던 진시황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가족이 좋고…
좋은 게 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추방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고계시는 예수님만이 그분의 죽음만이 오로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자, 이 메시아성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경계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었는데, 나중에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추방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탈출된 자로써 이 집안을 구원해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용적으로는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애굽과 애굽 안에 있는 유대사회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쫓겨나간 자가 애굽 내에서 구속당하고 있는 유대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구원해냅니다.
아! 묘한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왜 이것이 탈출이 됩니까?
이제 13년이 지나게 되면 전 근동 전체를 지배하는 가뭄이 주어질 것이고, 이 가정에는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추방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생각하기를 거기는 죽음이 임할 것이고 자기가 총리가 된 애굽은 곡물이 풍요로운 곳이 될 테니까 탈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죽음이 임할 곳으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언제든지 기억하고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기억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는데? 아니요, 안 믿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돈 벌어야 된다는 상황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과 가족을 위해야 된다는 상황보다 더 먼저 내 앞에 놓인 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제1현실이 될 때 천국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이 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죽음이 임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선적인 현실로서 천국이 저기 먼 곳으로 밀려나버린다는 건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제1현실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제1현실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이루는 게 과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은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현실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못 가졌다고 아쉬워할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깁니다.
천국을 현실로 믿는 사람은 과제가 이 세상을 탈출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과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늘로 탈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자꾸자꾸 사도바울의 말대로, '위에 것을 찾으라' '내 마음이 이미 하늘에 앉혔다' 이것을 원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 사업적으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장님의 우선적인 과제는 사업장이라는 현실을 떠나서 내 마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돼도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내 건강이 아무리 좋고, 내 자식이 아무리 형통하고, 내 가정이 아무리 잘돼도 내 마음이 지금 현실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언제나 과제는 내 마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음에 붙잡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때마다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편안하게 너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구속인줄 모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구속인줄 모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천국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형벌로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바로 천국,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아도 천국 앞에서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을 그런 천국으로, 하늘백성들을 끌어 탈출시키려는 탈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탈출구를 통해 오늘도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몸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이 세상을 탈출해서 우리 마음만은 하늘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옆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몸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결정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과제가 탈출인 것을 명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